

# 택시 인센티브, 막차버스 증차 서울시, 연말 안전귀가 돕는다

12월간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  
수요 많은 4곳에 택시승차대 설치  
인센티브 지급 등 심야택시 공급  
올빼미버스 공급, 버스 막차 연장



임시승차대 설치



택시 유도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키로 했다. 임시 택시승차대 운영지역 4개소는 ▲강남역 웨이크웨이 ▲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등이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

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서는 심야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우버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

‘우버’는 피크시간대 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다’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1시 승객 호출 시 차량 지정배차 및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타다’는 호출 많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아이엠택시’는 심야 운행 독려 및 호출 밀집지역으로 차량 이동을 신속히 유도할 예정이다.

연말 심야시간대 시민이 집중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도 늘린다. 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다.

심야전용 시내버스 ‘올빼미버스’ 운행도 늘린다. 17일부터 31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7대가 운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유아~대학 안전사고 데이터 구축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 학교급,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 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된다. 예컨대 지진 발생 시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와 침하가 동반하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 계획, 사회서비스 운영  
2개 분야에서 선정... 복지부 장관 표창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 등 2개 분야에서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는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결과까지 과정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발하는데 경기도는 최우수 광역자치

단체로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게 됐다.

도는 맞춤형 맞춤 지원으로 ‘경기도 형긴급복지대상 확대’,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360° 돌봄’, ‘노인상담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강화,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지원 등 특색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누구나 돌봄’, ‘AI노인말벗서비스’ 등 혁신사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 실적 등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서울시, 53만가구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2007년부터 2160억 투입... 94% 완료  
노후 주택·아파트, 수질·수압 개선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60억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5000가구의 94%인 약 53만 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1만 3000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해 약 78억원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 아파트는 송파구 올림픽웨이 아파트 2069세대, 동대문구 동답

한신아파트 600세대, 은평구 미성아파트 376세대 등 총 3000여 세대이며, 약 1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연말까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1120세대,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2646세대, 송파구 장미 1,2차아파트 3402세대 등 총 7168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에 약 39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총 2800가구에 수도꼭지 필터와 노후 급수관 세척 비용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어려운 이

들을 위한 것이다.

수도관 종합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에 아리수 음용률 설문 조사 결과, 교체 전 음용률보다 약 15% 많은 40%로 주택에서의 음용률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지원으로 노후 급수관 교체를 완료한 구로구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 주민대표는 “오래된 급수 설비를 교체하니 수질은 물론 수압도 좋아져서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며 “수억 원의 공사 비용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시 지원으로 추진을 하게 돼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7.2%↓

(전년비)

학령인구 감소 영향

서울 지역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의 지원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7.2% 줄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9일 발표했다.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 대비 1교 증가한 총 210교이다.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급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4133명(7.2%) 감

소한 총 5만3484명이다. 남자 2만7692명, 여자 2만5792명이다.

지원자 중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지원자는 전년 대비 597명(5.4%p) 감소한 1만509명이다. 중복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을 거쳐 오는 1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6 | 해질 / 17:14

12월 10일 (화)  
음력 : 11월 10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7, 동두천 -4/7, 가평 -5/7, 양평 -4/7, 용인 -1/7, 평택 -3/7, 수원 -1/7, 인천 0/7, 파주 -6/7, 서울 -1/8, 백령도 4/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트럼프 국무부 2인자에 크리스토퍼 랜도... 前 멕시코 대사  
▲美 포브스 비상경영 청구서... “5100만韓 국민이 할부로 치를 것” /사진 뉴시스

▲美 국방 “우크라이나 1조4000억원 추가 지원”  
▲EU 집행위, EU 7년간 방위비 현재의 10배 증액 제안



▲中 11월 외환보유 전월대비 48억달러 증가... “금융자산 올라”  
▲조지아 반EU정책 항의시위 11일째 “취재기자들 무차별 폭행” 항의 /사진 뉴시스